

# 7월 국회 공수처·인사청문회 험로 예고

### 통합당 복귀 정상화...쟁점법안 충돌 불가피

### 15일 출범 법정시한 명시 공수처 최대 뇌관

7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시작된다. 미래통합당의 복귀로 가까스로 정상화 되는 이번 국회에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일하는 국회법 등 쟁점법안을 놓고 또다시 충돌할 전망이다.

최대 뇌관은 오는 15일로 법정 출범 시한이 명시된 공수처 출범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

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인 2명의 위원 물색에 나서는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돌입했다.

다만,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동

의를 받아야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만큼,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워낙 어렵고 주창하고 있어 법정 출범 시기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5일 "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고, 좋은 처장 후보자를 찾아 속히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 내정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여야 격돌의 장이 될 전망이다.

통합당은 이번 인선을 '회전문 인사', '둘러막기'라고 비판하며 송곳 검증을 버리고 있다.

특히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현재 공석인 정보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 만큼 청문회를 계기로 정보위원장과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 선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통합당 원내 관계자는 "야당으로서의 견제 역할을 더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당내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휴일인 5일 국회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명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현수막 내건 민주당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1천억원 규모의 제3차 추경이 통과된 가운데 휴일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대로에 더불어민주당의 '3차 추경 35조 국회 통과, 민생중심 일하는 국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 정부, 35조원 3차 추경 배정안 의결

### 고용안정·한국판 뉴딜 등 추가편성

정부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35조3,000억원)보다는 2,000억원 손감됐다.

추경안에는 고용안정만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 예산 9조1,000억원, 한국판 뉴딜 예산 4조8,000억원 등이 추가로 편성됐고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지원 예산도 1,000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재정효과 극대화를 위해 3개월 내 주요 사업비의 75% 집행할 목표로 예산 집행을 즉시 돌입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추경의 효과 또한 역대 최대가 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 정부, 1조4천억 투입 일자리 31만개 제공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1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31만개를 제공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취업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사업을 제공하고 청년층에 정보통신기술(ICT) 일자리를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사업에는 모두 1조4,562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희망근로) 사업에는 총 1조3,401억원이 들어간다.

/연합뉴스

## 민주 전대 이낙연·김부겸 양자 대결

### 의원식 불출마...세 규합 경쟁 격화 전망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8·29 전당대회가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간 양자 대결로 사실상 압축됐다.

당초 이낙연, 우원식, 홍영표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간 4파전이 예상됐으나 홍 의원에 이어 우 의원이 5일 출마 의사를 접었다.

우 의원은 이날 "내가 대선 후보들과 경쟁하면서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모순되는 것 같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당내 대표적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홍 의원에 지난 3일 불출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대 구도가 양자로 정리됨에 따라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오는 7일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맞게 출마 선언식도 간소한 행사로 치른다는 구상이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의원은 당 대표가 되더라도 대선에 출마하려면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중도 사퇴해야 한다.

따라서 7개월이라는 제한된 임기 내에서 어떻게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당을 운영할지에 대한 선행한 메시지가 선언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앞서 "국가적 위기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조유의 거대 여당을 책임 있게 운영하는 일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전대 출마 명분으로 책임을 내세웠다.

김 전 의원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를 선언한다. 장소를 당사로 고른 것은 1990년대 초반 3당 합당을 거부한 '꼬마민주당' 과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주축이 된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 활동을 했던 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당을 지키겠다는 메시지가 반영된 것이라 설명이 다.

출마 선언에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문재인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며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김 전 의원은 대권주자이지만 당 대표가 될 경우 임기 2년을 채우겠다고 약속하며 이 의원과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양자구도 성사로 세 규합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 의원 등 친문 그룹을 향한 주자들의 구애 작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낙연 대세론'을 견제하려는 링 밖의 대권 주자들이 김 전 의원을 측면 지원할지도 관련 포인트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호남(이낙연) 대 영남(김부겸) 같은 지역 구도가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당 관계자는 "이낙연, 김부겸 두 사람만 후보로 나선다면 사실상 전대가 대선 예비경선으로 가는 것"이라며 "단순한 당 운영방안뿐 아니라 장기 비전을 놓고 부딪힐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내달 퇴임 이해찬, 정치일선 물러나 회고록 집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내달 2년 임기를 마치면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자서전을 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퇴임 뒤 여의도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회고록 집필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시점인 2022년 출간을 목표로 하는 책에는 이 대표가 유신 정권에 맞서 학생운동을 시작했던 1972년부터 약 50년 동안 한국 현대사를 관통한 정치 역정이 담길 예정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50년 정치 활동

을 정리하기 위한 회고록 집필을 준비 중"이라며 "이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역사적 기록으로서 도움이 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당 대표를 끝으로 정치 은퇴를 선언하긴 했지만, 여의도 정치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줄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당장은 당의 원로로서 상임고문 타이틀만 갖게 되지만, 임기 막바지까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총선 대승을 견인한 만큼 다음 대선 국면에서도 정권 재창출을 위해 물밑에서 두루 관여할 것이라 분석이다.

이 대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 관계 해법을 찾는 일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평소에도 그는 은퇴 후 희망 사항으로 평양대표부 대표를 짚는 등 남북관계 개선,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에 지대한 관심을 표해왔다.

/연합뉴스

GREEN GOONG PRIME EVER 120

#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금속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